

이스라엘 공습...젯터미로 변한 가자지구

전투기 60대 폭탄 100t 쏟아부어

이-팔 60년 대립史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인명피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폭탄을 투하한 27일(현지 시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60년 대립史(史)에서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60대가 이날 하루 가자지구의 주요 보안시설물에 쏟아부은 100t의 폭탄에 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고, 7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폭탄이 투하된 가자지구의 주요 시설물 40여 곳에서 피어오른 검은 짙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피폭 시설물은 폭삭 주저앉아 말 그대로 젯터미로 변했다. 가자지구를 흔든 폭음에 시내 건물의 유리창은 거의 다 깨져버렸다.

하마스의 보안시설물들 주변 도로는 화염에 그을리고 으스스하고 피로 발박이 된 시체들이 즐비하다고 AFP 통신이 현장 상황을 묘사했다.

구급차와 차량이 쉴 새 없이 부상자들을 시내의 알-사파 병원으로 태워 나갔고, 병원 응급실은 피폭 환자들의 비명으로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영안실은 이미 시신들로 가득 찬 상태여서 응급실과 복도에 시신들이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블였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하마스의 경찰본부였다. 이곳에서는 때마침 졸업식이 열리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

병원 측은 "사망자의 다수가 하마스 소속원들"이라면서 "하지만, 일

반 시민도 적지 않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희생된 민간인들은 하마스의 보안 시설물 주변을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으며, 사망자 중에는 여성도 15명이 포함됐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가자지구의 병원들은 실종된 가족

을 찾으려고 물러든 주민들도 복적거렸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신원확인 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에서 유족들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두 차례 큰 공습이 휩쓸고 간 뒤 가자지구에는 밤이 찾아오는데 상공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요 시설물이 파괴돼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눈발 속 군부대 시찰 견재 과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홍7연대'창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보도는 지난 25일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시찰 보도 이후 이틀만이다. 통신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 이 부대가 "전투정치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고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영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통있는 부대"라고 강조하고 군인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제323군부대 지휘부 방문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군 대장부인 현철재, 김명국을 비롯한 군대 지휘관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홍7연대'창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군부대를 찾을 때 '시찰'을, 공장 등을 방문할 때는 '현지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군부대를 '방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오중홍7연대'창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 부대의 경계근무 수행상황을 살펴본 후 비

행사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이번 군부대 시찰을 포함한 총 94회의 시찰활동을 한 것으로 북한 언론에 보도됐으며, 분야별로는 군부대 시찰 및 관련 행사 51회, 경제 시찰 27회, 대외 활동 5회, 기타 11회이다.

연합뉴스

日 '독도는 일본땅' 팸플릿 대량 배포

재외공관 통해 각국 배부

일본이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재외 각 공관을 통해 외국에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해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로 만들어 그동안 총 2만3천500여부를 국내외에 배포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

제외공관 통해 각국 배부

어, 스페인어로도 팸플릿을 만들어 재외공관을 통해 1천부씩을 배포하고 있다. 이들 팸플릿은 또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14쪽으로 된 팸플릿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존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이 섬을 영유권 없이

다고 있다.

연합뉴스

짐바브웨 콜레라 사망자 1,518명

짐바브웨의 콜레라 사망자수가 1천518명으로 늘어났다.

27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8월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25일 현재 사망자수는 1천518명으로 보고됐으며, 감염의심 환자도 2만 6천497명으로 증가했다.

WHO는 짐바브웨의 10개 주(州) 전체에 콜레라가 확산됐으며, 수도 하라레가 가장 타격이 심하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콜레라 사태는 짐바브웨 사상 가장 심각하다."고 말하고 "짐바브웨에서는 아직도 콜레라 사태가 제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WHO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은 이날 초 4%에서 5.7%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주변 국가들에도 콜레라가 번지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모잠비크, 잠비아 등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바그다드 폭탄 테러 22명 사망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27일(현지 시각)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4명 이상이 다쳤다. 카시 무사위 이라크군 대변인이 전했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이날 폭탄테러는 바그다드 북부의 시아파 거주지

인 카드히미야 지구의 알-자흐라 광장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에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

같은 날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무사이브 지역에서도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 이라크 군인 1명을 비롯해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공습 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은 이날 중순 강경 무장 정파 하마스와 휴전이 깨진 이후 양측이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벌여왔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은 불안정해가거나 양측의 휴전 체제가 유지되던 지난달 4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진입작전을 전개하면서 심화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군 부대를 납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접경지대에 파고 있는 땅굴을 분쇄한다는 명목으로 군부대를 가자지구에 투입, 무장대원들과 교전을 벌여 1명을 사살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 박격포 수십 발을

휴전 연장 거부·로켓탄 공격 보복 강경 무장 정파 하마스 고사 작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박격포 진지에 대한 공중폭격으로 대응해 5명을 숨지게 하면서 상대방에 포구를 겨누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급기야 하마스는 6개월 휴전이 만료된다고 선언하고 매일같이 단거리 카삼 로켓탄을 쏘아 올렸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응징을 경고해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현 정부가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배경으로, 내년 2월로 예정된 총선거도 관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마스가 휴전 연장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을 풀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이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치안통제권을 장악한 지난해 6월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틀어막고 하마스 체제의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가자지구에서 끊임없이 로켓탄이 발사되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미 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규모 공습작전을 준비해왔다.

이스라엘의 현 정부가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배경으로, 내년 2월로 예정된 총선거도 관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카디마당과 노동당이 이끄는 현 연립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수야당인 리쿠드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아 재집권이 불투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브니 장관과 노동당 당수인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은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를 절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현 정부는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게 극히 어렵다는 판단도 한 듯하다.

이스라엘의 바라크 국방장관은 28일 첫 번째 공중 공격을 마친 뒤 "군사작전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라크 장관은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an Korea) featuring a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심 (Baekam Onsen and Mystery of the Scenic Beauty) featuring a table of travel packages with columns for package name, price, and inclusions.